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장석주
시인

쇠를 달구고 망치질하며 노래하라

사람들은 원고료와 인세만으로 생계를 꾸리는 나를 가리켜 '전업 작가'라고 한다. 어찌어찌하다 보니 책상 앞에 어깨를 구부리고 앉아 글을 쓰는 직업을 갖게 되었다. 인생의 3분의 2를 책상 앞에 앉아서 글을 쓰며 보내고 나니 알겠다. 제 고독과 마주하며 무언가를 쓰는 일은 보람도 없지 않지만 꽤나 건조한 작업이라는 것을! 작가의 일이란 '꿈, 낳기, 창작'이다. 그 일은 '우리를 통해 존재하고자 하는 것들'에게 몸을 주어 존재하게 한다. 현실에서 당장의 쓸모는 없을지라도 작가라는 직업을 갖고 사는 동안 가끔 몸을 쓰는 직업을 가졌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까, 하고 묻곤 했다. 국가재해보험국이란 직장에서 근무하며 퇴근한 뒤에는 자기 방에서 타자기로 소설을 썼던 카프카가 그랬듯이 나는 언젠가 '가구를 만드는 장인'이 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종일 나무에서 나오는 향내를 맡으며 일하고 싶다는 꿈은 이룰 수가 없었다.

내 아버지의 직업은 목수였다. 그는 솜씨가 좋은 목수였지만 몸을 쓰는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은 크지 않았다. 현장에서 몸을 쓰며 땀 흘리는 일보다는 '책상에서 펜대를 굴리며' 살기를 갈망하던 아버지는 한 직장에서 진득하니 견디기보다는 여러 번 전직을 하며 옮겨 다녔다. 그렇게 옮겨 다녔건만 아버지는 만족감을 찾은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아버지는 실직으로 빈둥거리며 보낸 세월이 더 길었다. 일하지 않고 무위도식하는 자는 무기력하고 비루해 보였다. 내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던 것은 그 때문이다. 나는 여러 사업을 구상하고 '허황한 일확천금'을 꿈꾸는 아버지의 속내를 이해하거나 용납할 수가 없었다.

이 세상이 온전하도록 떠받치는 것은 '평범한 사물들의 인내심', 꽃을 피우는 구근식물, 벌과 나비들, 땅에 뿌리를 박고 광합성 작용을 하는 나무들, 그리고 제 자리를 지키며 일하는 자들의 성실함이다. 시인의 표현을 빌리면 대장간을 짓고, 쇠를 달구고 망치질 하며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은 평화롭게 굴러간다. 씨를 뿌리고 파종하는 농부들, 새벽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 미화 노동자들, 빵을 굽는 제빵사들,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 간호사와 의사들, 우편물을 분류하고 배달하는 우체국 직원들이 없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제 일터에서 헌신하는 노동자가 없다면 우리 생활은 지금보다 훨씬 더 조악하고 누추해질 게 분명하다.

'저기 언덕 꼭대기에 서서/ 소리치지 말라./ 물론 당신이 하는 말은/ 옳다, 너무 옳아서/ 그것을 말하는 자체가/ 소음이다./ 언덕 속으로 들어가라./ 그곳에 당신의 대장간을 지어라./ 그곳에 풀무를 세우고/ 그곳에서 쇠를 달구고/ 망치질 하며 노래하라./ 우리가 그 노래를 들을 것이다./ 그 노래를 듣고/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알 것이다'.(올라브 H. 하우게, '언덕 꼭대기에 서서 소리치지 말라')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이 공연히 언덕 꼭대기에 서서 소리치는 일이 되지 않기 위하여 애써야 한다. 그 외침이 의미의 생산이 아니라 소음을 만드는 공허한 짓인 탓이다. 나는 자주 묻는다. 내가 하는 일이 고슴도치나 양치식물이 세상에 기여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가? 한 줄의 시, 한 줄의 산문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힘을 보태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무용한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인들이란 얼마나 하염없는 존재들인가!

시인 윤동주는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에 제 얼굴을 비춰 보고 그 욕됨에 부끄러워하며,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라고 다짐한다. 그런 시구를 적는 청년은 외래의 피침으로 국권을 잃고 식민지로 전락한 조국에서 야만의 시대를 견뎌야 했던 그 누구보다도 정직한 사람이었다. 생명을 가진 것들은 모두 빛의 격려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일한다. 박새와 곤줄박이, 닭과 오리, 벌과 개미, 저 혼자 돋는 열무 싹과 민들레도 먹이를 구하며 생명의 동력을 얻는다. 우리가 하는 정직한 일들은 생계의 방편이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도정이며, 삶의 기쁨과 의미를 만드는 근간이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가 하는 일에 대한 평판에서 나온다. 일하지 않는 자는 어떤 평판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시인은 쇠를 달구고 망치질하며 노래하는 사람이 되라고 썼을 테다.

社 說

커지는 전남 동·서부권 격차 균형 잡을 때다

전남 동부권과 서남권 간 경제·인프라 격차가 갈수록 커지면서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분석한 각종 통계상 전남 동부권(여수·순천·광양·구례·고흥)과 서남권(목포·해남·영암·무안·진도·신안)의 격차는 상당하다. 우선 2020년 말 기준 전남 지역내총생산(GRDP) 78조 8000억 원 가운데 동부권은 44조 2000억 원으로 56.1%를 차지했다. 반면 서남권은 15조 7000억 원으로 19.9%에 그쳤다.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 수는 동부권이 39.1%(789개), 서남권은 24.1%(486개)였다.

인구와 사회간접자본(SOC)도 차이도 적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 인구 181만 8000명 중 동부권 인구는 43.6%(79만 2000명), 서남권은 27.1%(49만 3000명)를 각각 차지했다. 동부권은 또한 대규모 국제 행사 덕분에 SOC가 잇따라 확충되며 기반 시설에서도 서남권을 앞서갔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에 앞서 인근 도로와 철도 건설에만 18조 원이 투입됐다. 관광 분야에서도 '동(東)익부 서(西)익빈'이 뚜렷하다.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여수에는 관광호텔이 18개나 되지만 목포엔 다섯 개뿐이다.

이처럼 갈수록 커져가는 동서 격차 속에 최근 전남도가 동부지역본부 확대를 추진하자 서부권 전남도의원들은 "균형·상생 발전"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전남도도 이를 의식한 듯 광주~영암 아우토반, 전남형 트램 등 '서남권 SOC 신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무안국제공항과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수도권과 영남권 위주 국토 개발로 낙후를 벗지 못하고 있는 전남 내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이 커지도록 방치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다. 더 이상 서남권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균형 발전 실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 정착, 지자체가 솔선해야

광주·전남지역 일부 자치단체가 온실가스 초과 배출로 혈세를 들여 탄소 배출권을 사들여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 중 할당량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한 곳이 남은 배출권을 내놓으면 초과 배출한 곳이 이를 사서 할당량을 메우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팔려고 내놓는 배출권이 적으면 그만큼 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어 기업 입장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제도의 취지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환경 기초 시설을 보유한 광주·전남 지자체도 예외는 아니다. 목포시는 지난해 온실가스를 배출 할당량(4만 8831t)보다 9910t 초과 배출해 탄소 배출권 구매 비용으로 1억 1700만 원을 지출했다. 2018년부터 3년간 위생매립장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지난 2021년부터 탄소배출권 구매 대상이 됐다. 순천시도 올해 공공 하수처리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864t가량 초과해 규제를 받게 됐다. 16개 환경 기초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광주시도 배출권 거래제 규제를 받고 있다. 다행히 환경부에서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량(18만 3766t)을 넘기지 않아 배출권 구매 대상은 면했으나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일부 지자체는 배출권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환경 기초 시설 위탁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으로 정부의 환경 정책에 눈높이를 맞추기 어려운데다 공공 시설까지 규제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은 범지구적 과제이자 대세다.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지자체마저 미온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 미래 세대를 위한 제도인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자치단체들이 솔선해 저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종교칼럼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종교의 사명

7월이 되면 사람들은 여름이라는 더위, 그리고 무언가를 위해 일한 나에게 보상을 주는 학생들은 방학, 직장인들은 휴가를 생각하곤 한다. 얼마 전 타 종교 성직자들과 대화의 자리를 갖게 되었다. 그 모임의 주제는 통일이었고 상호 종단에 대한 이해도 높이자는 뜻에서 마련된 자리였다. 여러 교단의 발표를 들으면서 자긍심이 높을수록 고백이 솔직하고 자기 고발이 진솔할수록 성자들의 정신에 충실하려는 노력도 진지한 것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천주교를 대변하여 나온 신부는 일제 강점기에 교구가 다르기에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친일 했던 과거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고 역사의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3·1운동에 참여치 않았던 일들을 죄인의 심정으로 고백하기도 하고, 호국 불교의 이름으로 빚어진 반민중적 행위에 대한 불교 측의 목소리도 고해성사처럼 이어졌다.

참회(懺悔)는 자신이 범한 죄나 과오를 깨닫고 뉘우치는 일을 말하며 과거의 모든 일들을 버리고 새 생활을 개척하는 초보이며 선도에 드는 초문이라 하였다. 70년대 암울했던 시절 자유와 인권 그리고 권리를 갖지 못했던 민중의 고통에 동참하여 민주화의 길을 열어나갔던 천주교 사제들의 노력이나 "반민중적 권력 집단이 자행하는 폭력과 비민주적 제도는 철폐되어야 한다"며 단오한 의지로 대중 운동의 현장에 함께한 스님들의 민중 불교 운동들이 다 지난 역사에 대한 뼈아픈 참회에 바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창생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기쁨으로 맞겠다던 원불교 아홉 선진들의 맹서가 하늘에 사무쳤던 법인성사의 달이 바로 다음달 8월인데 우리는 법인의 정신에 부끄럼 없는 후진으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본다. 원불교는 일원의 진리에 바탕한 교화, 교육, 자선 복지, 문화 4대 방면에 100여 년의 역사는 대체로 괄목할 만한 성장과 함께 종교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외로 받아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단의 양적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본래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고,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의 소리도 들린다. 특히 지난 70~80년대의 민주화 과정에서 과산 김현 교무, 광주교당은 5·18 당시 도청 가까이 위치해 시민과 함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시위에 참여하고 시민들을 보호하고 희생자를 위한 천도재를 지내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인도적 활동을 하였으나 교단의 안위만을 우선한 소극적 태도들은 깊은 반성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지적들은 밖에서 오는 비판이라기보다는 비교적 젊은 층의 원불교 교역자나 청년층의 교도들 목소리라 할 수 있다. 비록 이들의 목소리가 소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교단은 큰 무게를 실어 들어야 한다. 이러한 지적들은 개교 정신에 관한 본질적 평가의 문제일 뿐 아니라 종교가 갖는 사회적 사명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어느 종교이든 창립 정신에 소홀하거나 시대적 요구에 충실하지 못할 때는 생명력이 감소되고 역사로부터도 외면당하게 된다. 최근 들어 우려하고 있는 교화의 침제 현상, 특히 청소년 교화의 부진은 이 같은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80년대 이후 급격한 증가를 보였던 천주교의 교세 확장이나 최근 들어 불교의 주변에 젊은 층이 모여드는 현상은 이러한 판단을 증거 하는 것이다. 다음 달인 8월은 원불교는 법인의 달이기도 하지만 광복의 달이기도 하고 분단의 비극이 싹 튼 달이기도 하다.

해방의 기쁨이 분단의 아픔으로 바뀐 채 70여 년이 다하는 세월을 약간의 대화 그리고 평화를 그리는 장은 되었지만 아직도 형제를 원수 삼아 살육과 증오와 저주로 맞서 왔다. 이 분단의 비극을 극복하는 일은 시대의 요구이며 민중의 염원이다.

이제 원불교뿐만 아니라 종교는 이 역사적 소명을 다하는 데 관심을 모아야 한다. 지난 시절의 부채를 갚는 일이며 역사와 민중 속에 거듭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無等鼓

4할의 영웅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한 분야에서 다른 사람이 미치지 못할 경지에 도달 하려면 그 일에 미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한국 프로야구 유일한 4할(4할 1푼 2리) 타자인 백인천은 4할 달성 요인을 '중독'이라고 말한다. "4할은 기술이나 실력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다. 관건은 야구 외적인 바이러스들, 즉 페이스를 망치는 우연적인 사건과 술·도박 같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느냐다. 야구보다 재미있는 일이 없는 중독 단계까지 가야 한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마지막 4할 타자 테드 윌리엄스는 평생 8000번 가량 타석에 섰는데, 그 모든 순간이 설레는 모험과 같았다고 말한다. 그는 "타자는 스스로에 미치고, 투수에게 미쳐야 한다"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 윌리엄스가 4할을 친 건 1941년 시즌이다. 마지막 날 경기를 앞둔 그의 타율은 0.39955. 반올림을 하면 딱 4할이었다. 감독이나 주변에서는 꿈의 4할을 만들었으니 출전하지 말라고 권했으나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전날 비가 와서 더블헤더로 열린 두 경기에서 무려 8타수 6안타를 쳐 0.406의 대기록을 완성했다.

당시에는 희생 플라이도 타수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오늘날의 규정에 맞춰 계산하면 그의 타율은 4할 1푼이 넘는다.

국가보훈부가 '7월의 6·25전쟁 영웅'으로 4할의 전설 테드 윌리엄스를 선정했다. 1952년 5월 메이저리그 선수 생활을 잠시 멈추고 한국전쟁에 참전한 그는 미국 제311 해병전투비행대대 소속 대위로 1년간 총 39회 전투 출격을 기록했다. 특히 평양 남부 지역을 폭격하던 중 대공포에 맞아 파손된 전투기를 몰고 가까스로 기지에 복귀하는 아찔한 위기도 경험했다고 한다. "전쟁 중에 가졌던 가장 큰 두려움은 부상이었다. 상이용사가 되는 건 상관없었다. 하지만 다시 야구를 못하게 되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윌리엄스는 군대에서 전역한 후 메이저리그에 복귀한 1953년 시즌에도 4할(0.407)을 쳤다. 비록 37경기에 출전해 91타수 37안타로 규정 타석엔 한참 미치지 못했지만.

/유제관 편집담당1국장 jkyou@

기 고

박진영
공감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

날씨가 언어에 미치는 영향

감정에 기복이 없이 평안하고 고요한 마음 상태를 '평정심'이라고 한다. 평정심은 사람을 실수의 위험에서 건져내고, 그 자체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늘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사람의 마음은 날씨의 변화에 의해서조차 흔들리기 쉬울 만큼 연약하다.

대체로 화창하거나 따뜻한 날씨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든다. 활기차게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한다. 반대로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으면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 불쾌지수는 날씨에 따라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를 기온과 습도를 이용해 나타내는 수치다. 불쾌지수가 높으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28%나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기온과 습도가 높은 날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조심해야 한다. 아주 조그마한 일에도 자신이 불쾌감을 느끼고 화를 내기 쉽기 때문이다.

이런 외부 환경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말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좋은 말 습관을 몸에 붙이는 것이다. 나쁜 말 습관을 고쳐 바꾸는 것이다. 꼭 고쳤으면 하는 나쁜 말 습관으로 두 가지를 들고 싶다.

첫째, 남의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조직 안에서는 동료나 선배의 사생활을 소재로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 옆 동료에게 휴일에 운동한 이야기를 했는데, 만나는 직원들마다 "팀장님, 요즘 운동을 시작하셨다면서요?" "팀장님, 어제 어디에서 운동하셨어요?"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전해들은 이야기를 당사자에게 다시 말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들이다. 그래도 상대방은 이를 알리고 싶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 게다가 타인의 사적인 일에 말이 더해져 과장되는 수가 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삶의 이야기는 말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말하지 않는 것을 습관으로 삼아야 한다. 상대가 자신의 얘기를 먼저 꺼낼 때 공감하는 정도가 좋겠다.

둘째, 상대를 무시하는 말투나 비꼬는 말투를 쓰는 것이다. 거친 말투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다.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한마디만 하겠는데'로 시작하는 말은 우리를 긴장하게 한다. 대부분 부정적인 말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며 말하자. 존중하며 말하는 것은 친절하게 말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배려하는 말투를 듣고 싶어 하고, 윽박지르는 말투를 들으면 불편해 한다. 처음 가는 식당에 가도 존중받지 못하거나 불친절한 느낌을 받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사람은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도 존중 받기를 원한다.

홍콩 배우 주윤발은 지난 2018년 전 재산 8100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재산의 일부도 아닌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발표는 현대인들에게는 놀라움이었다. 그는 "그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뿐이지요.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그 돈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은행에 그 돈을 맡긴다고 해도 죽고 나면 소용없습니다. 그 돈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소신을 밝혔다. 언행이 일치하는 삶을 추구하는 그의 모습이 현대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는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했다. "매일매일 사람들과 아주 부드럽고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을 표하지 않을 때 저는 스스로 매우 끔찍한 기분에 빠지거든요."

그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에 평화를 얻고, 단순하게 걱정 없이 살 수 있느냐다"라고 말했다. 그 평화로움은 상대를 존중할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고, 존중의 표현은 바로 상대에게 먼저 질문을 건네는 것이라고 명쾌하게 설명했다.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을 표하는 방법은 친절하게 말하기였다.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자신을 기분 좋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했다. 올여름은 엘니뇨로 인해 지난해보다 더 덥고 비도 많이 올 것이라고 한다. 많은 이들이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저탄소 생활을 실천에 옮기겠다고 말한다. 아름다운 태도다. 거친 말을 없애고, 상대를 존중하는 말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도 그렇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